

# 협중 세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책

○ ○

한국의 중국근현대사 연구자들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적극 옹호하는 유일한 연구자인 김희교 광운대 교수님이 이번에 협중의 민낯을 보여주는 책인 "짱.깨주의의 탄생"을 출판하셨는데, 일독을 정말 추천함.

아래는 출판사 리뷰

-----

한국사회의 중국인식 프레임, 짱.깨주의

‘짱.깨’라는 용어를 단순히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용어는 역사성을 가진다. 1894년 청일전쟁 전에는 조선에 살던 중국인들이 협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패하고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일본인은 중국인을 열등하고 미개한 국민으로 설정했고, 조선인도 일본의 식민 담론에 포섭돼 중국인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 한국전쟁 발발과 중국 참전, 반공주의 확산은 중국에 대한 협오와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1992년 한중수교를 맺으면서 중국 협오가 누그러지기도 했지만 중국이 부상할수록, 미중 충돌이 가속화될수록, 한국 사회에서 짱.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짱.깨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짱.깨주의 프레임이 사회 곳곳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분석한다. 짱.깨주의 프레임으로는 식민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사인종주의, 미국 중심의 수직적 동맹체제를 옹호하는 신식민체제, 자본의 문제를 중국의 문제로 돌리는 프레임, 반공주의 프레임으로 중국을 다시 인식하는 신냉전체제가 있다. 저자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이 무엇이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짱.깨라는 개념은 서구의 인종주의가 지니는 협오를 그대로 품고 있다. 《협오사회》에서 카롤린 엠케가 말했듯 협오사회에서 미움받는 존재는 언제나 모호하다. 짱.깨가 중국을 말하는지, 중국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중국인은 다 나쁘다는 것인지, 나쁜 사람은 중국인이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누군가 만든 모호한 집합체인 짱.깨라는 단어가 증오의 수신자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_89쪽 중에서

키신저 시스템의 위기, 냉전 시대로 회귀

그동안 한중미일은 샌프란시스코체제 이후 키신저 시스템으로 국가 간 질서를 유지해 왔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한 체제였다면, 키신저 시스템은 경제적 이유로 미국이 중국을 국제 경제체제에 편입한 시스템이다. 키신저 시스템으로 중국과 미국은 경제가 부흥했고, 동아시아는 미완이지만 평화의 시기가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느꼈다. 결국 미국은 키신저 시스템을 버리고 다시 샌프란시스코체제로 회귀하기 위해 중국봉쇄 전략을 펼친다. 저자는 중국이 문제라서 미중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으로 미중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책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탈유럽중심주의,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미중 충돌을 새롭게 설명한다.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트럼프행정부에서 돌발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중국 경제가 부상하는 1990년대부터 미국의 조야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웠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_57쪽

짱.깨주의의 일상화와 구조화

짱.깨주의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의식도 관련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전후체제가 흔들리고, 내부적으로는 반공주의와 친미주의가 약해지자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짱.깨주의를 내세운 것이다. 짱.깨주의가 일상이 되면서 이제 누구나 “중국이 문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중국 관련 문제를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보다 무조건 중국이 나쁘다고 결론짓게 한다. 저자는 ‘중국발 미세먼지’, ‘우한 바이러스’, ‘군사굴기’, ‘중화패권주의’와 같은 주요 사안들을 다루면서 보수진영에서 작동한 짱.깨주의 프레임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 프레임들이 어떻게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개한 중국’이거나 ‘나쁜 중국’이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큰 까닭은 국제 분업체제 때문이다.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을 때 일어난 서울 강남구의 쓰레기 대란은 국제 분업체제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키신저 시스템으로 국제 분업체제 속에 편입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불리며 제조업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_255쪽

짱.깨주의의 비판적 담론 실종

한국 진보주의도 중국 협오에 무관한 건 아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가 보편가치로 전유되었다. 이 프레임은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 중심의 사고이다. 서구의 민주주의 모델을 중국에 적용시켜 현재 중국을 해석하고 비난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저자는 중국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지 묻자고 말한다. 지식의 지평학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진보진영의 실천적 중국 담론이 사라진 까닭을 짚어가면서 현재 진보진영이 나아가야 할 중국 담론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 담론의 유통경로 분석

책에서는 짱.깨주의가 유통되는 경로도 주목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중국 기사를 읽다 보면 중국은 비난받아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한국 언론이 주로 인용한 중국 매체를 살펴보면, 왜 중국 협오에 맞춰진 기사가 많은지 이해된다. 저자는 한국 언론이 중국 뉴스를 보도할 때 인용하는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중국 신문 《완추스바오》의 영문판 《Global Times》 그밖에 통신사가 어떻게 중국을 보도하는지 분석한다. 이 기사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프레임으로 중국을 보게 했는지 알아본다.

## 일극체제에서 다자주의 시대로

그렇다면 미국이 키신저 시스템을 파괴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의 부상, 미국 해계모니의 쇠락, 미국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 아시아의 성장, 대항세력의 등장, 국제 분업체제 들로 재편되고 있다. 저자는 여러 문헌과 기사,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 다자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나간다. 이는 미국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장악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 한국이 다자주의 시대를 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 짱.깨주의를 넘어,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이제 어떤 국가와 협력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지는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국가로 작용한다. 또 한국과 오랜 시간 문화적 동질감을 가진 ‘이웃’으로 존재했다. 한국과 중국이 분열의 역사를 쓰기보다 공통의 역사를 쓴다면,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평화주의자들이 짱.깨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화체제의 관점에서 중국과 중국인을 바라보며,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세계를 꿈꿔야 한다고 말한다.

다자주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런 시대가 곧 우리의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늘 그런 시대에 앞서가는 국가가 있고 뒤처지는 국가가 있다. 역사는 지금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와 그것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이다. \_650쪽